

# 도발적인 《을지 프리덤 실드》의 위험성을 밝힌다

지난 16일 윤석열총장들이 미국과 함께 벌여놓은 《을지 프리덤 실드》 합동군사연습이 예비단계훈련을 거쳐 22일부터 기본훈련에 본격 진입하였다.

호전세력들은 이번 연습이 남조선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실드》(방패)라는것은 연습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해두고있다고 강변하고있다.

원래 가장 좋아한자들일수록 가장 화려한 비탄보조기로 자기 정체를 가리운다고 하였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남조선호전파들이 떠드는것처럼 이전 《정부》에서 축소되었던 야외실기동훈련을 단순복합한 수준의 보통연습, 방위태세강화를 위한 《정상적》 훈련이 아니라 북침을 노린 극도로 모험적이고 도발적인 실전연습이다.

우선 《을지 프리덤 실드》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위해대 목을 바코 강행되는 모험적인 전쟁연습이다.

이번 훈련이 국지전과 전면전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각종 작전계획들을 통합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내용들로 보충완성된 북침선제

공격작본인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되는 실동습으로 일관된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이번 전쟁연습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에는 모든 민간군이 총동원되었다. 투입되는 병력의 규모와 연합야의 기동훈련을 비롯하여 훈련의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도 극히 모험적이다. 지난 3월 남조선이 《도발자》로 매도한다고 하여, 전쟁연습의 간판이나 바꾸어 단다고 하여 선제적인 북침을 노린 《작전계획 5015》에 공화국의 700여개의 합동 타격지점외에 추가적인 핵심 시설들과 특정지역들이 더 포함되며 조선반도유사시 미군 중원부력의 보다 신속한 투입과 남조선군의 독자적공격전력의 적극적인 활용, 전술핵 폭탄사용 등의 《대북선제타격》방안이 더욱 구체화된다 고 한다. 이로써 북침공격작전계획은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말할수있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이번 훈련에서 공화국군대가 남침지역을 《침공하는 경우》라는 거대한 허구말에 공화국에 대한 사실상의 선제공격인 《대북역공격》훈련이라는것을 시행하는것은 연습의 위험성을 잘 말해주고있다.

도발자들은 침략의 구실을 날조해내기마련이다. 세계전쟁사의 뒤러온 갈라에는 그 수가 수없이 많고있다.

호전세력들은 합동군사연습의 명분으로 《북의 군사적도발이 지속되고 위협수위가 높아지고있다.》는 식의 그 어디에도 통하지 않을 케케묵은 《북도발설》과 《북위협론》을 내 놓고있다. 공화국을 《도발자》로 매도한다고 하여, 전쟁연습의 간판이나 바꾸어 단다고 하여 선제적인 북침을 노린 《작전계획 5015》에 공화국의 700여개의 합동 타격지점외에 추가적인 핵심 시설들과 특정지역들이 더 포함되며 조선반도유사시 미군 중원부력의 보다 신속한 투입과 남조선군의 독자적공격전력의 적극적인 활용, 전술핵 폭탄사용 등의 《대북선제타격》방안이 더욱 구체화된다 고 한다. 이로써 북침공격작전계획은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말할수있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이번 훈련에서 공화국군대가 남침지역을 《침공하는 경우》라는 거대한 허구말에 공화국에 대한 사실상의 선제공격인 《대북역공격》훈련이라는것을 시행하는것은 연습의 위험성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러 합동군사연습이 절정 단계에 진입하는 8월말에는 남조선군의 전연단들에서 선발된 특공대원들이 미본토에서 한달동안 연합특수전훈련을 진행하게 되어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기간 《북지역에 대한 민사작전》과 《북핵 및 미사일제거》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한미연합사단》의 실동훈련이 감행되는것과 사실상 이번 연습을 총괄하는 남조선장점 미군사령관이 미국군특수전사령부소속 《레인저》부대에서 오래동안 복무한 특수작전전문가라는것은 이번 전쟁연습의 모험성을 그대로 실증해준다.

《을지 프리덤 실드》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은 윤석열역도의 호전성과 맞물려 더욱 배가되고있다. 역대 남조선집권자들중가운데서 후보시절부터 《대북선제타격》을 공약으로 내댜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부터 찾아다니는것을, 집권하자마자 《북인민군과 북정권은 적》이라는 《북주적론》을 펴들며 국도의 대결광기를 부러낸것은 윤석열역도이다.

무지무능과 부정부패, 반인민적약정으로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하면서 국도의 통치위기에 몰린 전쟁광, 광패물한당이 그 탈출구를 긴장격화와 전쟁불장난에서 찾아

보고글 기를 쓰고 매달리는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은 안보위기의 먹구름으로 궁지에 몰린 가련한 불쌍을 가리우고 한심한 통치력에 쫓린 민심의 분노한 시선을 탄대로 돌려보려고 군사적모험을 불사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을지 프리덤 실드》 합동군사연습이 실전을 노리는 북침전쟁연습, 전쟁시연회라는것을 여실히 입증해주고있다.

남조선호전파들이 미국과 연합하여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 동족대결에 환장한 대결광으로서의 정체만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일뿐이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핵보유국앞에서 불장난을 하는것은 스스로 철성판에 오르는 자살적인 망동이다.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민중의 한결같은 지향에 도전하여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전쟁연습불장난에 광란적으 로 매달리는 윤석열역적패당은 철정한 우리 민족의 주적이며 악성비루스와 함께 반대시 그리고 철저히 박멸해버려야 할 민족의 재앙거리이다.

불을 즐기는 도발자들에게 차레질것은 오직 수치스러운 패배와 비참한 과멸뿐이다. 김현철

## 풍 자 시 《윤 놀이》인 줄 아느냐

윤놀이 줄 아느냐  
동족대결 노린 핵전쟁연습놀음이  
석두같은 미물이나  
하루강이 범무서운줄 모르느냐  
열개의 입이라도 할말이 없지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려놓았으니

윤놀이 줄 아느냐  
동족대결, 동족멸살놀음이  
석두같은 추물이나  
한치의 앞도 가려볼줄 모르느냐  
열개의 입이라도 할말이 없지  
호랑이의 마음- 엄벌대응에

윤놀이 줄 아느냐  
동족멸살 노린 악성비루스류포놀음이  
석두같은 바보이니  
후과도 판별 못하고 분별없이 날뛰느냐  
열개의 입이라도 할말이 없지  
성난 호랑이에게 당해야 하는 그 신세

석열아 석열아 정심차려라  
윤놀이처럼 호랑이를 대하다가  
네 죽어 빠다귀 무추러도 상관않겠  
다만  
국민이 피해를 당하니말이다  
(필자는 남조선현직주민임)

## 삼복철의 개털보자

속담에 《삼복철 개털보자》라는 말이 있다. 제일 더운 삼복철에 겨울용개털보자라는 뜻으로 전혀 쓸모가 없는것을 비추어 이르는 말이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인간,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배척당하는 인간이 바로 이 속담에 꼭 들어맞는자라 하겠다.

그런자가 바로 남조선에 새로 집권한 윤석열역도이다.

윤석열역도는 말그대로 민심에 역행하는것만 일삼는 삼복철 개털보자나 다름없는 반역자이다.

오늘날 남조선 각계는 파국에 처한 경제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북남간의 악순환을 해소하며 격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남조선이 고래 싸움에 끼운 새우가 되지 말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지난 취임 100일이 보여준것은 무엇인가.

서민들의 세금은 늘고 부자들의 세금을 낮추어 민생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있으며 부정부, 빈익빈을 더욱 부추기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와 《3저》(저성장, 저소비, 저투자)라는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하고있다.

통치의 초점이 민생이 아닌 《정치보복》에 맞춰져 거기에 골목한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불안한 방편대응으로 또다시 악성전염병의 대유행을 불러와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있다.

그런가 하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주적론》과 《대북역공작》을 고취하면서 이미 실패작으로 막힌 리명박역도의 《비핵, 개발, 3000》의 판박이와도 같은 《대북정책》을 내들어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체와 첨단무기구입 등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해로 불아가고있다.

강한 경제침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불안정으로 심각한 대외위기를 자초하고있다. 이런 윤석열역도의 민생역행이야말로 아무 쓸모짝도 없는 재앙거리가 아니겠는가. 자고로 세 대검은 제가 받는다고 했다. 윤석열역도는 지금 남조선 각계층으로부터 말그대로 삼복철 개털보자 취급을 받고있는 가련한 존재이다.

최근 남조선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최초로 떨어졌고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말하듯이 집권 3개월만에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한 권력자는 윤석열역도가 처음이다.

이것은 윤석열역도의 현 처지가 역대 《대통령》들의 집권말기때보다도 훨씬 못한 지경에 처하였고 일제강점기 민심의 완전한 버림과 배척을 받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면 윤석열역도가 왜 이와 같이 가혹한 삼복철 개털보자신세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은 윤석열역도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금과옥조처럼 여기고있는데 있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강한자가 약한자를 착취할수 있는 《자유》이며 강한자가 약한자를 억압할수 있는 《민주주의》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참다운 자유와 평등, 진정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장을 가르라고 세계도처에서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합리화하는데 적극 리용되어왔다는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민중에 반기를 드는자의 운명은 언제나 비참한 법이다.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민중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를 산생시키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숭배하는 윤석열역도에 게 있어서 삼복철 개털보자신세는 피할수 없는 숙명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치혼란과 경제위기, 민생과탄과 외교안보불안을 초래하고있다.》, 《정책기준을 환골탈태시키지 않으면 제2의 조총련혁명을 자초할수도 있을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난규탄해나가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않다.

력사와 민심은 이미 민의를 짚고고 시대에 역행해온 반인민적, 반민주적인 윤석열 《정권》이 사망선고령을 내리었으며 역적패당이 이전 보수 《정권》의 뒤를 이어 가장 비참한 과멸의 나락에 굴러떨어지는것은 시간문제이다.

김 광

윤석열역도가 갈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과멸의 늪에서 벗어나보려고 바둥대고있다.

민생과탄과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공공로인상을 자제하겠다고 하면 약속마저 집어 던지고 전기와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올렸다.

결과 2월까지만 해도 3% 대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월과 7월 각각 6%, 6.3%로 치우치 1997년 외환위기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윤석열역도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라고 하면서 금리인상을 단행한것으로 하여 주민들의 빚부담만 증대되었다.

병주고 약준다는 속담을 거꾸로 읽어야 할 역적패당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교육과 지금까지 민생이 이렇게 힘든것은 없었다.》, 《윤석열이 민생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취임이후 무엇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였는지 몰고있다.》,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눈을 씻고봐도 대책은 안보인이다.》, 《정세를 살피라고 대통령직에 앉았는데 말로만 민생을 떠들지 말고 밥상을 가부리 잡으라.》, 《윤석열의 경제판관조치들은 아무런 현실성도 타당성도 없는것으로서 그 밑바탕에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몰두한다는 인상을 풍겨 집권위기를 모면해보려는 흉심이 깔려있다.》고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하고있다.

이처럼 《보여주기보다는 일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받자는것》으로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벌려놓았던 민생과 경제위기수습놀음은 역적패당의 무지무능과 위선적 정체만을 스스로 드러내놓는 결과밖에 가져온것이 없다.

안중에도 없이 사대매국파 동족대결, 반인민적약정과 부정부패, 강권과 독신을 일삼고있는 윤석열역도이다.

특히 《북주적론》을 내내리고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전

미국이라든 사족을 못쓰고 굵신거리며 침략적인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의 앞잡이노릇을 자처하여 주변나라들의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자,

정부패행위 등으로 그 기반성이 여지없이 드러났기때문이다.

지난 《대통령》선거때 청년층을 위한다며 내뱉었던 수

《당의 희망》, 《변화의 꽃》이라고 침발린 소리로 추

《유심 많은 개》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푸주간에서 급격한 고기덩이를 훌쩍물고 달아나던 한마리의 개가 다리를 건드려가 문득 물속에서 저보다 더 큰 고기덩이를 물고있는 개를 보았습니다. 저놈이... 하고 그 개는 왕-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고기덩이가 없어버리고 천길폭포에 휘말려 죽었다던지, 저우 목숨만 건졌다던지. 웃음속의 옛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실을 오히려 사자관을 향해 줄달음치는 어리석은자들에게 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남조선에도 그런자가 있구만요. 예, 다음이 윤석열역도입니다. 국방부청사에 《우리》를 정하고 공화국을 향해 《주적론》을 짓어대다 못해 외세와 연합하여 북침전쟁연습에 발발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을지 프리덤 실드》(UFS) 합동군사연습이 그런것들중의 하나입니다. 이에는 《우리》에 든 지식달을 넘겨 틀이 잡혔는지 이발을 드러내놓고 으르렁거리며 허세와 깃개를 부리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디다. 주인이 옆에 있으면 더 숨이 나 쫓아대는 개처럼 상전인 미국이 쥐고있는 핵봉

들이 먹고 기고만장해있는 꼴이 참 가관입니다. 허나 상대를 알고 덤벼도 덤벼야지요. 세계전열에 오른 공화국의 군사적강세는 미국의 《핵우산》따위는 수리개가 거미줄 무찌르듯 할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지구의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를 막론하고 마구 행패질을 하며 강제노릇을 해온 미국이었지만 공화국만은 조금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발동으로 내리치자니 《고슴도치》이고 이발로 깨물어보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인것처럼 아무때나 으르렁대고 풀수없이 쫓아대는 롱과대의 《개》는 물매를 맞기 싫습니다. 《전쟁연습 중단! 한미동맹반대!》, 《윤석열 퇴진하라!》 남조선 각계층이 반전, 반미, 반윤석열투쟁에 노드처럼 일떠서는것이 과연 우연한것일까요? 제 능력도 오판, 상대가 누구인지도 오판, 현실도 오판, 민심도 오판... 옛이야기의 개는 육신 때문에 망해버렸는데 현실의 윤석열역도는 오판때문에 종말의 길로 갈달음치고있습니다. 그래서 역도에게 맺어주는 것일입니다. 《오판이자 사판이다》라고 말입니다. 머리가 돌지 않는자라 알아듣거나 하겠는지. 신 경 일

《관심 많은 개》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푸주간에서 급격한 고기덩이를 훌쩍물고 달아나던 한마리의 개가 다리를 건드려가 문득 물속에서 저보다 더 큰 고기덩이를 물고있는 개를 보았습니다. 저놈이... 하고 그 개는 왕-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고기덩이가 없어버리고 천길폭포에 휘말려 죽었다던지, 저우 목숨만 건졌다던지. 웃음속의 옛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실을 오히려 사자관을 향해 줄달음치는 어리석은자들에게 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남조선에도 그런자가 있구만요. 예, 다음이 윤석열역도입니다. 국방부청사에 《우리》를 정하고 공화국을 향해 《주적론》을 짓어대다 못해 외세와 연합하여 북침전쟁연습에 발발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을지 프리덤 실드》(UFS) 합동군사연습이 그런것들중의 하나입니다. 이에는 《우리》에 든 지식달을 넘겨 틀이 잡혔는지 이발을 드러내놓고 으르렁거리며 허세와 깃개를 부리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디다. 주인이 옆에 있으면 더 숨이 나 쫓아대는 개처럼 상전인 미국이 쥐고있는 핵봉

로 돌리고 정치적수수들을 제거하기 위해 벌려놓은 《신북쪽》 소동도 처음은 《정치보복》, 정치위기를 모면하는 위한 유훈한 모략이라는것이 각계의 비난이다. 사실들은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이 집권위기를 모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혐오감과 분노, 반 《정부》, 반윤석열기운만을 더욱 증대시키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주 광 일



루는 불공정과 불상식, 민주주의와 평화과피, 민생과탄으로 이어지고있다고 단죄하고있다.

특히 《북주적론》을 내내리고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전

면 윤석열역도는 취임 100일도 되나마나한 시기에 벌써 안팎으로 규탄배격을 받고 《탄핵》당할 운명에 처해있다.

남조선 각계층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시국성명, rond,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만 터지면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던 윤석열역도의 하루하

수익은 한해 농사를 지어놓고 무익은 핵무기의 본격적인 가을걷이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즐기는 민속명절로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1년중 수확(민속명절)에서 가장 명절로 쇠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수확과 풍요의 상징인 추석이 부당과 절망의 날로 되어 《차라리 명절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저절로 튀어나오고있다고 한다.

특히 추석이 당장 눈앞인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 중립자책과 소비물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민생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고있다.

## 아부리 말머들처본야야...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역적패당은 《대통령》 선거대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공공로인상을 자제하겠다고 하면 약속마저 집어 던지고 전기와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올렸다. 결과 2월까지만 해도 3% 대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월과 7월 각각 6%, 6.3%로 치우치 1997년 외환위기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윤석열역도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라고 하면서 금리인상을 단행한것으로 하여 주민들의 빚부담만 증대되었다.

병주고 약준다는 속담을 거꾸로 읽어야 할 역적패당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교육과 지금까지 민생이 이렇게 힘든것은 없었다.》, 《윤석열이 민생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취임이후 무엇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였는지 몰고있다.》,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눈을 씻고봐도 대책은 안보인이다.》, 《정세를 살피라고 대통령직에 앉았는데 말로만 민생을 떠들지 말고 밥상을 가부리 잡으라.》, 《윤석열의 경제판관조치들은 아무런 현실성도 타당성도 없는것으로서 그 밑바탕에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몰두한다는 인상을 풍겨 집권위기를 모면해보려는 흉심이 깔려있다.》고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하고있다.

이처럼 《보여주기보다는 일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받자는것》으로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벌려놓았던 민생과 경제위기수습놀음은 역적패당의 무지무능과 위선적 정체만을 스스로 드러내놓는 결과밖에 가져온것이 없다.

안중에도 없이 사대매국파 동족대결, 반인민적약정과 부정부패, 강권과 독신을 일삼고있는 윤석열역도이다.

특히 《북주적론》을 내내리고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전

면 윤석열역도는 취임 100일도 되나마나한 시기에 벌써 안팎으로 규탄배격을 받고 《탄핵》당할 운명에 처해있다.

남조선 각계층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시국성명, rond,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만 터지면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던 윤석열역도의 하루하

수익은 한해 농사를 지어놓고 무익은 핵무기의 본격적인 가을걷이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즐기는 민속명절로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1년중 수확(민속명절)에서 가장 명절로 쇠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수확과 풍요의 상징인 추석이 부당과 절망의 날로 되어 《차라리 명절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저절로 튀어나오고있다고 한다.

특히 추석이 당장 눈앞인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 중립자책과 소비물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민생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고있다.

## 귀찮은 추석

추석은 한해 농사를 지어놓고 무익은 핵무기의 본격적인 가을걷이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즐기는 민속명절로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1년중 수확(민속명절)에서 가장 명절로 쇠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수확과 풍요의 상징인 추석이 부당과 절망의 날로 되어 《차라리 명절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저절로 튀어나오고있다고 한다.

특히 추석이 당장 눈앞인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 중립자책과 소비물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민생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고있다.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 선거에서 표를 던진것이 후회된다.》, 《박근혜처럼 탄핵해야 한다.》 오 승 열

윤석열역적패당이 민생위기해결을 떠들고있지만 《장미빛 정책발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무능, 무대책, 무대응의 3부정부》,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맹랑정부》라고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민생이 도란에 빠지면, 재해로 인명이 죽어가는 아랑곳없이 나쁜나 끼고 영화 구경이나 다리고 술에 만취되어 돌아치는가 하면 폭우가 쏟아지는 비상상황에서도 집에 자빠져 잠이나 자는 윤석열과 같은 인간조물, 얼간이가 《대통령》으로 거를 먹거리니 남조선인민들의 삶이 날로 더욱 망가지고있는 것이다.

추석명절도 격정과 근심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된 남조선 각계층은 민생이되면, 부정부패, 특권특세를 비롯하여 반인민적약정만 펼쳐는 윤석열역적패당을 하루빨리 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배 영 일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 선거에서 표를 던진것이 후회된다.》, 《박근혜처럼 탄핵해야 한다.》 오 승 열

윤석열역적패당이 민생위기해결을 떠들고있지만 《장미빛 정책발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무능, 무대책, 무대응의 3부정부》,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맹랑정부》라고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민생이 도란에 빠지면, 재해로 인명이 죽어가는 아랑곳없이 나쁜나 끼고 영화 구경이나 다리고 술에 만취되어 돌아치는가 하면 폭우가 쏟아지는 비상상황에서도 집에 자빠져 잠이나 자는 윤석열과 같은 인간조물, 얼간이가 《대통령》으로 거를 먹거리니 남조선인민들의 삶이 날로 더욱 망가지고있는 것이다.